



# 군종주보

2020년 6월 14일(제986호) 지극히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상제 상철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성체성사”

미사 때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체성사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체성사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알려줍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성체성사는 생명의 성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 곧 온몸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내시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삶 안에서 언제나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은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성체성사가 사랑이며 생명이라면,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도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나눔과 섬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한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

이 올 수 있는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잘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근본정신을 ‘머물고 기억하며 걷는 것’이라고 요약하시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하여 걸으면서 그분의 행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유념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억 속에서 걸어야 하고, 기억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 기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안락한 곳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신과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과 함께 ‘거리’로 나서게 하며,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박학진(요셉) 신부  
이기지(27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부 속 기

신명 8,2-3.14ㄴ-16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1코린 10,16-17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6,51-58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최 비르지타



성인명: 최 비르지타 (崔 Brigid)

신분: 과부, 순교자

활동연도: 1783-1839년

최(崔) 비르지타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신유박해 때 남편이 교우 황사영 알렉시오를 숨겨 준 죄로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되자, 그녀도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1839년 원주에서 순교한 최해성 요한은 그녀의 조카이다.

최 비르지타의 남편은 유배된 다음에 그곳에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대세를 줄 교우를 불러올 수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면 남편과 정결을 지켜 남매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 자신이 대세를 주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의지할 데가 없었으므로 오빠에게로 돌아왔다. 그 오빠가 곧 최해성 요한의 부친이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 요한은 가족을 피신시킨 뒤에 집으로 천주교 서적을 가지러 갔다가 체포되어 원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 최 비르지타는 조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렵지 않게 조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옥으로 갔다가 관원들에게 발각되었다. 관원들이 신분을 묻자, 최 비르지타는 “옥에 갇혀 있는 최 요한의 어미요.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관원들이 “그렇다면, 너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냐?”라고 하자, 그녀는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교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원들은 ‘배교하지 않으면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 비르지타는 배교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하느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관원은 최 비르지타를 죄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녀에게 고문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이를 참고 견디어 냈다. 그러자 관원은 그녀를 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 비르지타는 금방 죽지 않고 4개월 동안 옥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하였다. 4개월 뒤에도 최 비르지타가 죽지 않은 것을 본 관원은 다시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3일 안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때 옥리들은 3일 안에는 그녀를 굶겨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날 밤에 옥으로 들어가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으니, 이때가 1839년 12월 8일(음력 11월 3일)과 9일 밤 사이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6세였다.

###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너의 자리다.

너의 자리다.  
올라오렴.

아직요.

그렇게,

오늘도 님 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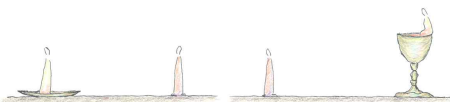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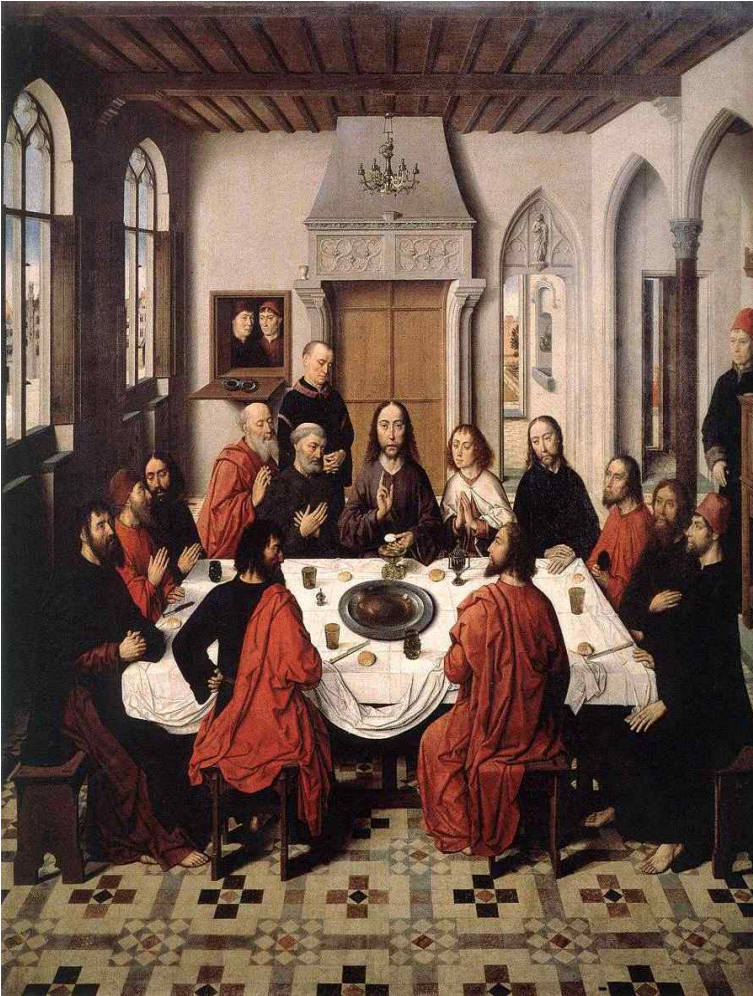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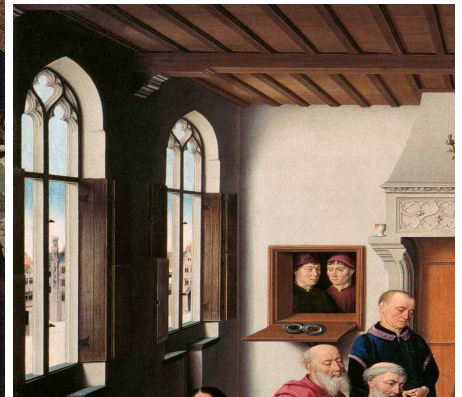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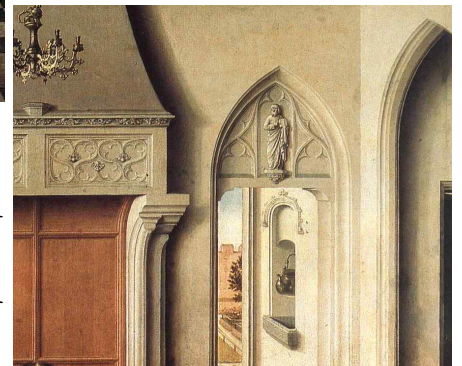
성체상사 제단화



이 그림이 다른 최후의 만찬 그림과 차별되는 점은, 예수님이 성체를 강복하시는 그 순간을 그린 몇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 시간, 이 순간을 엄숙히 목상하는 듯하며, 마치 성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이 영원히 그림 속에서 멈춰진 듯 느껴진다. 식탁 위 도구들과 음식은 그 표면이 거울처럼 빛나는 듯, 세부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세부도1



세부도2

디에릭 비우즈, 1464년~1467년 제작

피넬 위 유화, 185x194cm / 로이엔, 상비드로 성당

이 공간은 열린 창문을 통해 거리의 모습과 건물 뒤쪽의 자연 풍광이 어우러져 닫힌 공간이 아니라 활짝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왼쪽 작은 공간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 또한 이 공간에 초대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체 상절 대축일: 독봉 김인식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